

# 베트남 계절근로 격리자에 따뜻한 선행

### 무주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전통음식 자조모임, 고향음식 꾸러미 전달

무주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베트남 전통음식 자조모임이 무풍면의 베트남 계절근로 격리자들에게 고향음식 나눔으로 힘을 실어줘 화제다.

이들 계절근로자 신분으로 무주에 온 베트남인들은 무풍면에서 함께 운동하는 가운데 코로나19에 확진되면서 불가피하게 자가 격리에 들어간 상태다. 이에 무주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전통음식 자조모임은 지난 20일 밤 빠른 선행이 펼쳐졌다.

이번 고향음식 나눔 활동은 8월 둘째 주부터 확산된 무풍면의 코로나 확진자들 가운데 베트남 계절근로격리자들을 위해 자조모임회원들과 센터 직원들이 밤 늦고 나섰다.

이들은 계절근로 격리자들에게 베트남의 가정에서 흔히 먹을 수 있는 가정식 2가지와 모임회원 및 개인 후원자, 센터직원의 후원으로 각종 과일, 베트남 식품, 식재료 등으로 꾸러미를 만들어 25명의 격리자들에게 전달했다.

직접적인 나눔 활동에 나선 센터 직원들과 모임회원은 무풍면의 코로나 확산세를 감안해 격리자들과 직접적인 접촉을 피하고 격리자들의 주거지 주변에 꾸러미를 놓고 격리자가 찾아가는 간접적인 나눔 활동으로 방역에도 힘썼다.

센터의 베트남 전통음식 자조모임은 지역 내 베트남 결혼이민자들로 구성되어 '고향의 음식 만들기'라는 주제로 한국에 정착한지 오래된 결혼이민자들에게는 고국의 향수를 느낄 수 있는



무주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베트남 전통음식 자조모임이 무풍면의 베트남 계절근로 격리자들에게 '고향음식 나눔'으로 힘을 실어줬다.

자리를 마련하고 있다.

또 초기 결혼이민자에게는 기존의 결혼이민자들과 음식을 만들며 한국 사회 적응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공유함에 따라 결혼이민자들과 상부상조하여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모임이다.

또한 센터는 베트남에서 온 격리자들과의 아침, 저녁으로 이루어지는 자가 격리자 방역수칙 안내, 유의 사항 등을 전달하면서 그들과 함께 하고 있다.

센터는 특히 원활한 전달과 의사소통을 위해 군 사회복지과와 안전재단과의 연계를 통해 통번역지원사를 주축으로 5명의 베트남 다문화가족이 베트남 통역 자원봉사자가 되어 효율

적인 자가 격리를 위한 통역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무주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장진원 센터장은 "코로나로 인해 사회로부터 격리되어 더욱 외로울 수밖에 없는 무풍면 격리자들을 위해 따뜻한 고향의 음식을 보낼 수 있게 되어 뿌듯하다"며 "고향사람들을 위해 발벗고 나서준 우리 베트남 자조모임 회원과 센터직원, 개인 후원자에게 감사 인사를 보내며, 무풍면의 격리자들에게도 응원의 메시지를 보낸다"고 말했다.

한편,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문의 사항은 무주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063-322-1130)로 문의하면 된다. /무주=전문선 기자

# 인공수분 꽃가루 지원 수요 조사

### 무주군, 과수 생산 도움 주기 위해 31일까지 신청 받아

무주군이 오는 31일까지 관내 농업인을 대상으로 과수 인공수분 꽃가루 지원사업을 위한 수요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무주군에 따르면 최근 지구온난화 등의 기후변화로 인해 동해피해와 개화기 저온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군은 이러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수정률을 향상시키고, 과수 생산에 도움을 주기 위해 꽃가루 지원사업을 지속한다고 밝혔다.

개인적으로 신청하는 농가는 개인 신청서, 단체로 신청하는 농가는 단체 신청서 및 단체 집계표 양식에 맞게

각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기술연구과 소득작목팀 이화재 팀장은 "이번 과수 인공수분 꽃가루 지원사업 수요조사를 통해 농업인들의 어려움이 조금이나마 해소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수요조사 뿐만 아니라 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지원사업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무주군은 사과·복숭아 농업에 종사하는 1,400여 농가에서 880ha(무주군 재배면적의 20%)면적을 재배하고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 진안군, 가축분뇨 자원화 시설 설치 용역 중간 보고회

진안군은 25일 가축분뇨 자원화(고체연료, 퇴비) 시설 2개소 설치와 관련한 타당성 조사용역 중간 보고회를 개최했다.

용역 보고회는 전춘성 진안군수를 비롯해 진안군의회 이우규 부의장, 박관순 산업복지위원장과 관련 부서 국장 및 과장 등이 참석한 가축분뇨 자원화 시설 설치 용역 중간보고 결과를 평가하고 향후 계획에 대해서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자원화 시설 처리용량 및 부지 선정과 관련한 사항을 비롯해 타 시군의 사례보고가 함께 진행됐다.

진안군은 돈(豚)분 처리에 한정된 기존의 공공처리시설을 우(牛)분(고체연료시설) 및 계(鷄)분(퇴비시설) 등도 처리할 수 있도록 가축분뇨 자원화

시설을 구축하고 있다.

또한 지속적인 가축사육두수 증가로 인해 오염 부하량이 증가하고 있어 안정적인 수질오염 총량 관리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삭감이 필요한 상황이다. 판단하고 가축 분뇨 공공처리시설 증설, 고체 연료화 사업 등을 추진 중에 있다.

군은 이번 중간보고회에서 제시된 의견들을 종합해 용역을 마무리 짓고, 용역 최종보고서를 토대로 중앙부처 국가예산 확보 및 관련 부서 협력을 강화해 지속 가능한 축산농업 발전 기반 구축, 진안군 단위유역의 수질 환경 개선 등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가축분뇨 자원화 시설 설치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 진안군, 노인 대상자 폐렴구균 무료 예방접종

진안군은 1956년 이전 출생자(만 65세 이상) 중 다당질 폐렴구균 백신을 한 번도 맞지 않은 어르신에 한해 1회 폐렴구균 무료 예방접종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1년 관내 어르신 폐렴구균 예방접종 대상자는 452명으로 상반기에 237명이 접종을 완료해 접종률이 52.7%에 달한다.

현재까지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대상자는 보건(지)소와 관내 위탁의료기관 4개소(구세의원, 마이과정형외과 의원, 우리가정의학과의원, 진안군의료원)에 신분증을 가지고 방문하면 접종할 수 있다.

주의사항으로는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과 전·후 14일 간격을 두고 접종을 하여야 하며, 접종 전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날짜를 확인해야 한다.

폐렴구균은 폐렴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이다. 주로 폐렴에 감염된 사람의 침이나 콧물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전염된다. 기침, 가래, 호흡곤란, 발열, 오한, 흉통, 뇌수막염, 심내막염 등의 증상을 보인다. 나이가 많거나 심장병, 당뇨 등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에게는 폐렴구균은 치명적일 수 있다.

또한 통계청의 사망원인 결과에 따르면 폐렴은 암과 심장질환에 이어 대한민국 사망원인 3위이며, 65세 이상의 경우 폐렴으로 인한 사망률이 15~64세보다 80배 높았다.

이민우 보건소장은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통해 감염증 발생을 줄일 수 있으니 적극적인 접종을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 장수군, 의료급여 신규대상자 가정방문 교육

### 적정의료이용·복지혜택 지원 위해

장수군이 의료급여 신규대상자를 대상으로 의료급여제도를 이해시키고 적정의료이용 및 장수군 복지혜택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27일까지 가정방문 교육을 실시한다.

의료급여 제도는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대상에게 발생할 수 있는 의료문제, 즉 개인의 질병, 부상, 출산 등에 필요한 의료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로 장애인보조기기 구입비지원,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및 환급금, 요양비 등의 현금 서비스와 병·의원 및 약국 이용시 본인부담금을 감면해 주는 현물 서비스로 제공된다.



군은 매월 신규로 책정된 의료급여 대상자의 가정을 가가호호 방문해 의료급여제도에 대해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가정방문을 통해 복지 수혜대상자로 선정되었음에도 지원세부내역을 알지 못해 놓칠 수 있는 의료기관 이용절차, 65세이상 노인틀니 및 임플란트지원, 의료급여일수 연장신청 및

선택의료기관제도를 사전안내해 예방적 측면의 건강관리를 지원함과 동시에 적정의료이용을 유도함으로써 의료비 절감에도 기여하고 있다.

이번 신규 방문교육을 받은 한 고령의 대상자는 "집으로 직접 찾아와서 설명해 주니 너무 고맙고 이해가 잘 되었다"며 "집에 간호사선생님을 한번 모시고 있는 것 같아 앞으로 의료비 걱정은 안해도 되겠다"고 말했다.

조금현 주민복지실장은 "의료급여 제도가 다소 복잡해 보이지만 우리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매일 지속적으로 신규대상자 가정방문 교육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수=고관호 기자

## 지역 소식통

### 장수군 계남향약 정기총회

장수군은 조선시대 권선징악과 상부상조를 목적으로 만든 향촌 자치규약인 향약을 이어오고 있는 장수군 계남향약(약장 양종업) 정기총회가 계남문예복지관에서 열렸다고 25일 밝혔다.

정기총회는 양종업 향약장과 각급 기관사회단체장, 지역주민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뤄졌으며 이날 행사에서는 미풍양속을 함양하고 향약 운영 발전에 이바지할 공로로 김철수 전 향약장에 감사패를 전달하고, 계남면 가곡마을 정지숙 씨에게 효부상을 시상했다.

계남향약은 1993년 계남향약회가 계남향약으로 개칭해 조상들의 지혜로운 마을 자치규약인 향약을 문화로 만들어 4대 강령인 덕업상권, 과실상규, 예속상교, 환난상휼의 아름다운 풍습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기 위한 단체인 장수군 무형문화재 제18호로 등재되어 있다.

양종업 향약장은 "향약이 앞으로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약원님들의 뜻을 모아 적극적으로 활동하겠다"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 진안군, 귀농·귀촌 정책위원회 가져

진안군은 25일 부군수실에서 귀농·귀촌인의 이주 촉진과 정착 지원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귀농·귀촌 정책위원회를 개최했다.

올해 6월에 첫 출범한 진안군 귀농·귀촌 정책위원회는 귀농·귀촌 및 농업 등 관련 분야 민간 전문가를 포함한 총 1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양한 시각과 폭넓은 경험으로 귀농·귀촌 관련 정책 방향 수립에 관한 사항, 귀농·귀촌 지원사업 심의와 결정 등의 취소에 관한 사항에 관해 심의, 의결 또는 자문기능을 수행한다.

이날 열린 위원회에서는 주택 공급 방안에 대해 아이디어 제안 및 토의 등의 시간을 가졌다. 위원들은 보조금을 지원받아 조성된 시설물 중 관리기한이 끝난 거주 시설을 활용하고, 교육프로그램과 연계할 수 있는 가족체제농원을 면에도 조성하는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 착한신고



##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지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